

#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민간 투자 활기

### 컨트리클럽·관광호텔 등 이어 현대에너지, 베이커리카페 착공 내년 완공...채류형 관광지 도약

정읍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가 민간 투자가 활기를 띠며 계절별 채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는 내장산국립공원과 용산호를 접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호남고속도로 내장산IC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처럼 탁월한 입지 조건은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채류형 여행지를 제공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정읍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현대에너지는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베이커리카페 건축을 최근 착공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개발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소유 중인 다른 부지에 대한 투자를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의 조화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번 착공이 다른 분양토지 투자자들의 사업 착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에는 이미 (주)대일개발이



관광단지 내 내장산골프장과 용산호수 전경.

운영하는 내장산컨트리클럽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시와 전북자치도가 협력 추진 중인 관광호텔 조성 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2021년 준공된 숙박시설 '엘리스테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국내외 건축상을 두 차례 수상하며 전국 각지의 투숙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JB금융그룹의 아우름캐퍼스가 지난해 11월부터 계열사 직원들의 연수를 진행하며, 운동장과 풀빌라 부지 등 복리후생 시설을 조성해 직원과 가족들이 연중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고창군, 내년 예산 8496억원 편성

### 전년보다 328억 증액

고창군이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비전을 담아 2025년도 예산을 8496억원 규모로 편성해 고창군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3.86% 309억원, 특별회계는 11.29% 1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전년 대비 4.02% 328억원이 늘어났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부 긴급재정 기조와 맞물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7.2% 235억원이 증가한 국·도비 확보가 전체 예산 증액을 뒷받쳤다.

편성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테마파크 조성 45억원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 3억6000만원 ▲농촌협약 93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44억원 ▲구름골 산림사업 54억원 ▲드론통합지원센터 50억원 ▲도시재생혁신지구 31억4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소상공인지원 사업으로는 ▲고창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상액 48억70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지원 9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15억원 ▲중소기업(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5억5000만원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사업 8억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20

억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사업 예산으로는 ▲명사십리 관광지 조성사업 74억원 ▲명사십리 관광지 지정 수립 용역 17억원 ▲명사십리 해안도로 포장 사업 3억원 ▲모양성제 축제 17억4000만원 ▲구시포항 오션 뉴딜사업 21억원 ▲고창황윤석도서관 건립 44억원 ▲2025년 세계유산 축전 22억원 등이다.

생태환경 사업은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 11억4000만원 ▲운곡람사르습지 생태탐방로 조성 12억원 ▲고창 갯벌 식생복원사업 20억원 ▲국민안심해안 사업 28억5000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시설 설치 4억8000만원 ▲노후경유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지원 58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7억6000만원 ▲도요물폐쇄 보금자리 조성 4억원 등이다.

군민안전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는 ▲상하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0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34억5000만원 ▲고촌 3지구 급경사지 정비 15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7억원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275억원 ▲마을만들기 사업 29억원 ▲연화1지구 대구경 역점정리 사업 15억8000만원 등이 편성됐다.

고창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고창군의회 제31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오는 12월18일 최종 결정된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 농한기 어르신 울리는 '떴다방' 주의보

### 홍보관서 춤·노래 등 미끼로 식품 판매...남원시, 신고 당부

남원시가 농한기철 속칭 '떴다방'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보를 당부했다.

'떴다방'은 일정 기간 홍보관 등을 차려두고 춤, 노래, 미끼 상품 등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떴다방'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뤄져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 또 대부분 불법행위가 현장설명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이미 자취를 감춰 쉽게 적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녹취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적발해 해도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다.

노인들 역시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것이 염려돼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제미안 공연과 말 상대를 해주는 것이 고마워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원시의 설명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만약 총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했다더라도 포장을 뜯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반품을 할 수 있다"면서 "불법적 판매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소비자상담센터,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보건소, 경찰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남원시, 취약계층 방문해 건강관리

### 내년 2월까지 건강관리지원단 운영

남원시가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남원시는 오는 12월부터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보건지소방문전담인력 50명으로 방문건강관리지원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한파대비 집중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보건소는 한파에 즉각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방한물품 전달 등의 건

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집중관리 대상 7300여명을 선별한 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문자로 안부확인하고 건강 모니터링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한 119와 지역 의료기관 연계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대상자 방문 시 건강상태 점검과 더불어 난방기 작동 여부 등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필요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청년농 정착 지원금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 정책자금은 최대 5억원

### 다음달 18일 사업 설명회

정읍시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농업인재 육성에 나섰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독립 영농 경력 3년 이하이거나 독립 경영 예정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은 영농 경력에 따라 최대 3년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되고 농기구입, 시설설치, 농기계구입 등을 위한 청년후계농 정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은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2월18일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지침 안내와 사업계획서 작



지난해 열렸던 '2024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설명회'.

성 시연이 진행되며 특히 정읍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사업 신청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설명회가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

업계획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정읍에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데크의 세대교체!"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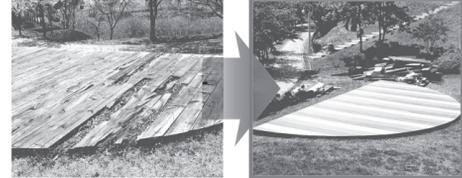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